소망으로 심고, 인내로 거두다

삭막하고 차가운 도시 중심의 상가건물 4층에 위치한 대전 새길교회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 풍경과는 다르게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픈 테이블과 의자들, 그 주위에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장식들, 새길교회는 누가 와도 편안한 느낌을 받을 만한 공간이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옆 학원 수강생들과 다른 층에 위치한 병원의 환자들도 자주 들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오픈 되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차를 마시러 왔다가 등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하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길교회는 위로와 평안을 선물하고 있는 셈이다.

카페에서 살짝 눈을 돌리면 강대상 위로 여러 나라의 이름과 국기가 보인다. 국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김정호 담임목사는 새길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답한다. 10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주보를 보니 다른 교회들과 기관들도 돕고 있다. 새길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아직 재정이 탄탄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구제에 교회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었다.

새길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는 교육관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어부와 농부'가 그것이다. 새길교회 아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되길 바라는 소망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어부와 농부'에서는 평일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자교실, 바둑교실, 댄스교실, 영어교실이 열리고 있다. 모든 교실은 무료로 진행되며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다. 그들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새길교회는 아직 교회 규모는 작지만 알토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본질적인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김 목사가 개척을 결심하면서 가진 사람을 세우는 목회철학때문이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히 붙잡고 있는 제자훈련의 열매들이다.

21세기 아둘람 굴을 꿈꾸며

김정호 목사의 개척 당시 목회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김 목사는 침례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칠 때쯤 겸직하고 있던 교수직의 안식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는 친척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2002년 말씀을 통독하던 중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 개척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김정호 목사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소명을 받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침례신학대학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4년 대전 새길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가량이었더라"(삼상 22:1~2).

김 목사는 위의 성경 구절처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 목사가 이런 목회 비전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봤기 때문이다.

1997년 10월 그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종양세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몸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다음해 5월에 2~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 목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정말 그때 피가 굳는 것 같았어요. 온갖 고민과 걱정들이 저를 짓눌러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가 당시 일기에 '오늘 제발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뇌종양 선고를 받으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염려와 걱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원망과 불평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렸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묵상하며 이런 마음을 품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저를 만지시고 용서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용서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더라고요."

자칫 극한 상황에 몰입되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상황에서 김 목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13명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물의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있어 주먹만 하던 종양이 2센티미터로 줄어들었다. 의사도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계속 호전되어 1999년 봄에는 다시 강단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었다.

김 목사는 이렇게 인생에서 고통의 시기를 보내면서 환난이 무엇인지, 원통함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품어 줄 수 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다

김정호 목사는 이러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2004년 새길교회

를 개척했다. 그 당시 삼천동(현 둔산3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에 세 가정이 모여 교회를 시작했다. 새길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전체 예산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지출해 오고 있다. 김 목사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교회 밖으로 나가 전도했고 선교사 후원도 꾸준히 해왔다.

또한 지역 주민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 어려운 주민들의 명단을 얻어 그들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사다 주었다. 가끔 생필품 대신 현금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현금을 준다는 것에 우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현금 3만 원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한지 3개월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찾아왔다. 그분의 손에는 9천 원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9천 원을 김 목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돈을 벌면 십분의 일은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새길교회에서 달마다 3만 원씩 주셨잖아요. 없는 살림이지만 십일조를 드려야겠다 싶어 이렇게 세 달치 십일조를 가져왔어요. 부끄럽지만 받아주세요 목사님. 고맙고 감사해요."

이후 할머니는 새길교회의 팬이 되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새길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주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최근 삼천동 근처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한 노점상 아주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나는 새길교회 아니면 절대 안 가요!" 그곳을 떠나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김 목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거두시더라고요. 이런 게 전도하는 보람인가 봅니다."

개척한 후 열악한 형편과 환경이었지만 전도와 구제에 열심을 내었고, 사역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교인이 25명으로 성장했다. 비좁은 장소의 문제로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교회 재정으로 교회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 목사와 새길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 그날도 부지를 찾아다니다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변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유독 눈이 덮여 있지 않은 한 생활정보지를 발견했다. 무심결에 그것을 주워들고 읽었는데, 6개월 동안이나 팔리지 않고 있는 한 상가 건물 내 사무실을 발견했다. 그는 바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을 뿐더러 김 목사의 사정 이야기에 공감한 건물주는 정보지에 내놓은 가격보다 약 40퍼센트 싼 가격에 팔았다. 그렇게 2006년 3월 현재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었다.

교회를 이전하고 보니 그동안 부지를 놓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주차가 편한 곳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건물은 주일에 교회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다. 주차 등 여러 문제로 옆 상가와 관계가 어려워진 교회들을 더러 보기도 했는데, 주일에 영업하는 곳이 없을 뿐더러 건물 자체가 'ㅁ'자 구조라 다른 상점에 피해를 주지도 않아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김 목사와 교인들은 지금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 확신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고백한다.

김 목사와 새길교회는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다. 단기간 내에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씨를 뿌리고 애를 쓴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열매들을 하나둘씩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서서히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

김정호 목사는 새길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200~300미터의 교회들을 조사해 보았다. 충격인 것은 27개의 소형 교회 중 22개의 교회가 해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길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분명 목회의 본질인 제자훈련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목사는 확신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김정호 목사는 제자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김정호 목사가 회심한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등학생 때까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어느 종교나 다 똑같다고 믿었던 그는 대학교에 들어가 네비게이토 선배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은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네비게이토에서 기초 신앙을 쌓았다.

지역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던 그 당시 김 목사는 네비게이토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김 목사는 네비게이토를 나오게 되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예배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주일에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 불만이었어요.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수십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만 큐티를 하는 것에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정해진 구절만으로 이해했을 때 오류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스태프들이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그렇게 지역 교회로 나와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다녔다. 후에 대전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시무)에 출석했다. 오정호 목사 부임 초기부터 새로남교회를 다닌 김 목사는 오 목사로부터 새로남교회 2기 제자훈련을 받았다. 뇌종양 판정으로 사역훈련은 바로 받지 못하고, 회복 후 사역훈련을 받고 순장 사역까지 감당했다.

김정호 목사는 "제가 평신도로서 오정호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받고 새로남교회에서 순장 사역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제자훈련 인도자가 제자훈련 경험과 순장으로서의 소그룹 인도 경험이 있다는 것은 제자훈련을 인도함에 있어 큰 강점이 된다. 왜냐하면 귀납적 성경공부가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미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그룹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소그룹 인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목회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통해 소그룹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고 있다. 제자훈련 체험학교에서 귀납적 소그룹 인도의 실제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체험학교 참여가 어렵다면 주변의 제자훈련에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제자훈련을 가상으로 실습해 보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신도로서 훈련을 받고 순장 사역까지 경험해 본 김 목사가 새길교회를 훈련 공동체로 세워 나가는 꿈과 비전을 키운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새길교회가 탄생한 지 4년째인 2008년, 새길교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것은 김 목사가 참석한 두 개의 세미나 때문이었다. 2008년 3월에 김 목사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주최한 1기 개척교회세미나와 77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먼저 1기 개척교회세미나를 통해서 김 목사는 교회 개척에 대한 당위성을 발견하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특히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옥한흠 목사의 메시지가 교회 개척에 대한 당위성과 확신을 주었다고 한다.

"60년, 70년 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유럽에도 100년 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지금은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세미나를 꼭 들으라고 추천한다고 한다. 이어 같은 달에 열린 CAL세미나를 통해 김 목사는 평신도 입장에서 배웠던 제자훈련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작업이 제자훈련을 흔들릴 수 없는 자신의 목회철학으로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김 목사는 CAL세미나부터 새길교회에서 1기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제자훈련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하며 가상의 제자훈련을 해보았다.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하지 않고 준비 작업을 한 이유는 "목회자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CAL세미나를 통해 큰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도전받은 열정이 식기 전에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한다. 어떤 목회자들은 어떻게 제자훈련을 자신의 교회에 도입할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 목사가 CAL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갖게 된 것은 다른 목회자와 동일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제자훈련을 위해 '준비 기간'을 가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의 순간을 인내로 극복하라

제자훈련 준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2008년, 1기 제자훈련이 남자 집사 6명, 여자 집사 7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올해 4기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 거의 매해 10명 안팎의 성도들이 훈련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4명이 등록했다가 2명이 중도 포기해 결국 2명만 졸업하는 일이 생겼다. 이때 폐강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혹 교회 내 제자훈련의 열기가 식을 것을 우려해 계속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가 너무 적어 제자반을 개설할 수조차 없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새길교회 출석교인 수가 장년 80명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제자훈련 역사는 위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개척 교회의 경우, 성도 수가 적기 때문에 제자반에서 나눈 이야기가 교인 전체에게 알려질까 부담을 갖기 쉽다. 또한 어려운 형편으로 자존감도 낮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해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의 수도 적기 때문에 해마다 제자훈련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매년 제자훈련을 개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올해 제자훈련을 했다면, 다음해에는 사역훈련을 해서 2년 주기로 훈련 과정을 편성하는 융통성을 갖는 것도 좋다. 교회 내 훈련의 열기와 열정을 유지한 채, 소수의 사람이라도 진정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목사는 새길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200~300미터의 교회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1천 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가 하나, 중형 교회가 둘, 나머지 27개의 교회는 개척 교회 내지는 소형 교회임을 발견했다. 게다가 더 충격인 것은 27개의 소형 교회 중 22개의 교회가 해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길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분명 목회의 본질인 제자훈련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목사는 확신했다.

새길교회는 개척 초기에 초신자가 전체 교인의 80%였다. 그리고 새길교회 주변에는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가 많았다. 그 사람들이 아귤람 굴 역할을 하는 새길교회로 모인 것이다. 제자훈련으로 텃밭을 일구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과 양육으로 물과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그는 과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한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김 목사는 D형 큐티의 적용 질문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로 바꾸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해는 교회의 표어를 '성질 죽이기'로 정하고, 설교를 통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라며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훈련 중에 너무 힘들어 하던 훈련생들도 나중에는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 내에서 겸손히 섬기고 있다.

현재 새길교회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은 1, 2기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훈련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구역장으로 섬길 뿐더러 구역별로 선교지와 봉사단체, 그리고 개척 교회를 돕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새길교회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류환규 집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방황의 시절, 신앙의 암흑기에 대학원에서 김정호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때 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존심만을 앞세우며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고 세상이 좋아서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공허감과 상실감이었다. 그런데 그 공허감과 상실감은 김정호 목사의 제안으로 매주 2시간씩의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5년 새길교회 교인이 된 류집사는 1기 제자훈련생이 되었다. 그는 훈련 전 직장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와 육체적 고난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으며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모든 상황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물론 1년의 훈련 기간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훈련기간이 1년이나 된다는 이야기에 아내와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내가 원하지도 않게 짜여진 시간과 틀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제자훈련에 몰입하자 어느 순간 점점 변화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제자훈련 중에 위기를 맞게 된다. 위기란 단어가 의미하듯, 단순히 위험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훈련 중에 맞는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류 집사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장본인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모퉁잇돌 위에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올리면 결국 큰 건물이 되는 것처럼 제자훈련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류 집사는 구역장은 물론 수요일마다 차량봉사를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꽃꽂이도 하고, 매주 교육관 청소를 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류 집사

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받아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갓난아이 신앙을 가졌던 한 성도가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교회에서 리더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감격스럽다. 제자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나갈 때 분명한 열매를 보게 된다. 교회의 규모를 막론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훈련을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여 충성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진다.

성경공부 인도자가 아닌 영적 부모로서 리더 배출

새길교회가 제자훈련과 함께 집중하고 있는 특징적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양육'이다. 어느 교회든 양육에 관심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호 목사는 특별히 '영적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한 양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양육'에 대한 특별 교육을 사역훈련 과정에 넣어 가르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성경공부 인도자가 아닌 영적 부모로서의 양육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리더를 배출하려는 목적이다.

사실 이 개념은 김정호 목사의 신학 석사학위(Th. M.) 논문 주제이기도 하다. 김 목사는 교회에서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진 양육인을 통해 영적 자녀들이 충분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으며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양육 개념에서는 자녀를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리더들은 성도들의 개인별, 단계별 영적 성숙 목표와 내용을 정한 다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통해 양육하는 것이다. 다음은 김정호 목사의 논문 일부이다.

"성경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하나님은 영적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책임을 영적 부모에게 맡기셨다. 양육은 영적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여러 방법이나 수단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이란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즉 방법이나 체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가족 됨을 실현한다는 것은 영적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돌봄, 보호와 치유함,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부모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직설적으로 교훈하는 장면이 많다. 신약에 나타난 실제적인 사역의 모형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소그룹 인도자에게 있어 양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그룹 인도자는 단순한 성경교사가 아니다. 그룹원들의 영적 필요와 수준을 파악해 그 필요를 채우고,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소그룹 인도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제자훈련은 바로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소망하며

인터뷰가 끝나자 김정호 목사와 류환규 집사는 옥상에 한 번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확 트인 넓은 공간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작은 화단으로 인도하더니 여러 채소와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작은 텃밭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조만간 그 텃밭에서는 갖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그 텃밭이 바로 새길교회의 모습과 같다.

새길교회는 개척 초기에 초신자가 전체 교인의 80%였다. 그리고 새길교회 주변에는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가 많았다.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 역할을 하는 새길교회로 모인 것이다. 제자훈련으로 텃밭을 일구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과 양육으로 물과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제 막 씨앗에서 움이 터 새싹이 돋고 있다. 때로는 거센 비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들을 모두 견뎌낸 새싹들은 튼튼한 줄기와 무성한 잎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그 열매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다른 귀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새길교회는 여전히 개척 교회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아직 제자훈련 정착 과정에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새길교회에는 제자훈련을 목회철학으로 삼고, 확신과 인내로 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다. 영적 부모로서 성도들을 품고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 그러기에 새길교회 텃밭에 곧 제자훈련의 꽃이 활짝 피고,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최순성 목사〉